

C9007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금융투자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3956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통변액보통,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5.05.26
운용기간	2025.01.01 ~ 2025.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 목적은 중국 및 홍콩 지역의 대표적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 및 홍콩주식시장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천USD, 천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자산 총액 (A)	171	194	13.67
	부채 총액 (B)	0	0	13.17
	순자산총액 (C=A-B)	171	194	13.67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6,968	26,947	-0.08
	기준가격 (E=C/D × 1000)	6.33	7.20	13.74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1분기 중국 증시는 MSCI China 기준 14% 이상 상승했으며, 홍콩 상장 빅테크 종목이 상승을 견인한 반면 본토 A주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분기 초반에는 정책 모멘텀 부재, 연후 전 유동성 경색, 트럼프 관세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본토 증시가 부진했으나, 홍콩 시장은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 뉴스에 힘입어 관련 투자 수요가 우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공격적인 AI 투자 가이던스 역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인대에서 발표된 내수 진작 및 재정적자를 상향 등의 부양책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분기 후반 A주 프리미엄 급락에 따른 H주 과열 우려와 함께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H주는 추가 상승을 멈추고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본토 펀드들의 H주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고용, 디플레이션, 소비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 징후가 미약하며, 테크를 제외한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는 상승폭이 컸던 H주를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빅테크의 상대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한 점은 자금 흐름이 다시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컬 투자자들의 증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점은 올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본토 투자자들의 활발한 증시 참여로 인해 2분기 A주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연달아 집중되며 정책 효과도 제한적이었던 반면, 올해는 1~2월 채권 발행 규모가 과거 대비 확대되며 재정 지원이 앞당겨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 기대감이 증시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13.74	1.41	15.38	17.6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17.65	-6.86	-11.00	-26.98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천USD)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21	-	-	-	-	-	-	-	-21
당기	-	-	-	23	-	-	-	-	-	-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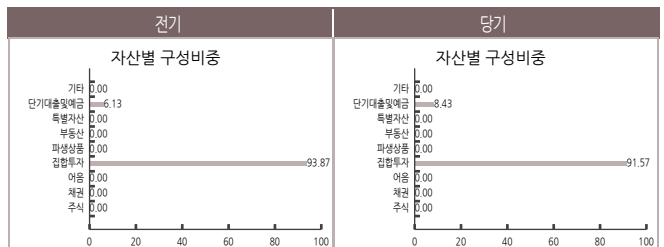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천USD,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USD	0	0	0	178	0	0	0	0	0	16	0	194
(1,472.90)	(0.00)	(0.00)	(0.00)	(91.57)	(0.00)	(0.00)	(0.00)	(0.00)	(0.00)	(8.43)	(0.00)	(100.00)
합 계	0	0	0	178	0	0	0	0	0	16	0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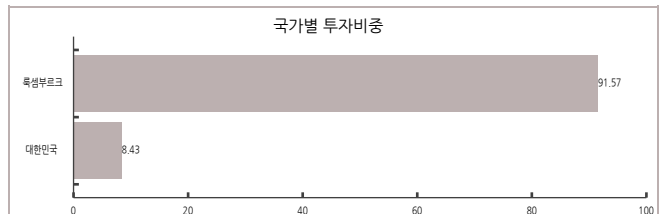
※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룩셈부르크	91.57	6		
2	대한민국	8.43	7		
3			8		
4			9		
5			1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FIDELITY-CHINA CONSUMRA-AUSD	91.57	6	
2	단기상품	USD Deposit	8.43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천USD,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FIDELITY-CHINA CONSUMRA-AUSD	수익증권	155	178	룩셈부르크	USD	91.5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천USD,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외화예치금	한국씨티은행	2015-05-26	16	0.00	-	대한민국	USD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6	2,184,57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184,57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184,57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11	0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0	0.14	0	0.13
기타비용	0	0.01	0	0.01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	-
	합계	0	-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계좌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 비용비율(A)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982	0	0.5982
당기	0.5933	0	0.5933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재간접구조 현황

- 1) 해외운용사명: Fidelity Investment Management
- 2) 해외소재지: 룩셈부르크
- 3) 해외운용전문인력: Hyomi Jie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달러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